



트레이드 렌즈

TRADE LENS

투자에 초점을 맞추다.

CRYPTO INSIGHT / No.05

디지털자산의 레버리지·청산·유동성을 읽는 리서치

미국 물가 충격과 가상자산 파생상품의 연쇄청산

BTC·ETH의 레버리지·증거금·유동성 구조

분석의 구분

거시 촉발 요인

≠

증거금·유동성의 증폭

CPI·PPI와 위험 재평가

강제 매매와 체결능력

청산액은 손실액이 아니다.

위험 정상화는 증거금과 유동성에서 확인한다.

발표 시점·계약 단위·담보 범위를 맞추고, 가격 반등과 위험 감소를 구분한다.



01 / RESEARCH VIEW

물가 충격의 증폭은 증거금과 유동성에서 갈린다

TradeLens 판단 | 거시경제의 촉발 요인과 파생상품의 강제 매매 구조를 분리한다.

핵심 결론

물가지표가 위험신호를 바꾸더라도 연쇄청산의 크기는 포지션의 증거금 여력, 담보의 안정성과 체결 가능한 유동성에 좌우된다. 가격 반등이나 청산액 감소만으로 위험이 정상화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무슨 변화인가

CPI 발표 이후의 가격 조정과 강제청산을 같은 시간축에서 읽는다. PPI 발표 이전에 작성된 청산 집계를 이후 지표의 결과로 보지 않는다. [1] [2] [3]

왜 중요한가

같은 가격 충격도 레버리지와 담보 구조에 따라 자발적 거래가 강제 매매로 전환되는 시점이 다르다.

누가 부담하는가

손실은 포지션 보유자, 청산 인수자, 보험기금과 일부 반대 포지션으로 이동할 수 있다. 청산 명목액이 거래소의 이익은 아니다. [12] [14]

무엇을 확인하는가

미결제약정의 수량·달러 가치, 펀딩, 호가 깊이와 담보 상태를 함께 본다. 국내 원화가격은 환율과 프리미엄도 분리한다.

이 보고서의 분석 단위

BTC·ETH 선물의 공개된 사건 스냅샷과 거래소·프로토콜의 공식 규칙을 결합한다. 실제 거래소별 원가나 투자자의 손실액을 역산하는 보고서가 아니라, 가격 충격이 강제청산으로 증폭되는 조건을 설명하는 시장구조 분석이다.

독자에게 남길 기준

촉발 뉴스 → 증거금 훼손 → 강제 매매 → 유동성 흡수 → 잔여 위험. 다섯 단계를 구분해야 변동성의 원인과 정상화의 조건을 판단할 수 있다.

분석 기준일 2026.10.17. 사건 수치는 각 원문의 관측 시점에 한정한다. 본문의 가정 계산은 거래소의 실제 청산 건적이나 매매 기준이 아니다.



02 / EVENT CLOCK

10월 15일 청산 스냅샷은 PPI 발표보다 먼저다

발표 시각·보도 시각·이동 집계기간을 구분해야 인과관계가 뒤바뀌지 않는다.

사건 시간축

한국시간 KST



물가지표 · 2026년 9월	전월 대비	의미
CPI 전체 [1]	+0.6%	소비자가격 · 계절조정
CPI 식품·에너지 제외 [1]	+0.3%	전체 CPI와 구분되는 근원 지표
PPI 최종수요 [2]	+1.3%	생산자 관점 · 계절조정

CPI 전체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3.7%, 식품·에너지 제외는 2.6%다. 월간 변화와 연간 변화를 섞지 않고, PPI를 CPI나 소비 지출물가로 그대로 대입하지 않는다. [1] [2]

시간축이 만드는 결론

보도 게시시각은 PPI 공개보다 8시간 5분 이른다. 따라서 그 스냅샷을 PPI 발표에 따른 청산으로 설명할 수 없다. 또한 이동 24시간은 CPI 이전 거래도 포함할 수 있어 전체 금액을 CPI의 단독 효과로 귀속할 수 없다.

EDT=UTC-4, KST=UTC+9로 13시간 차이. 13:25는 기사의 게시시각이며 원자료의 초 단위 집계 종료시각을 뜻하지 않는다. CPI 이후 기술주 약세 등 다른 요인도 함께 보도됐다.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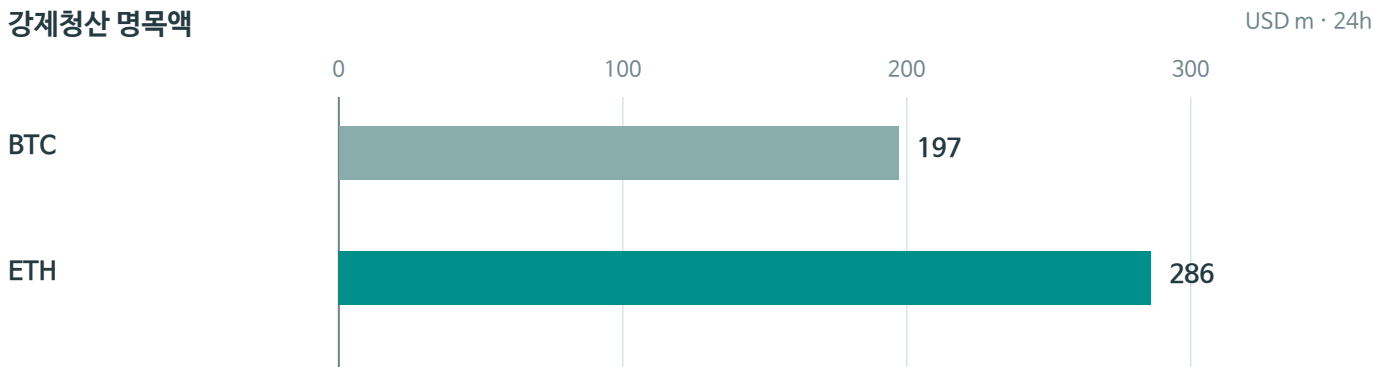


03 / LIQUIDATION SNAPSHOT

시장 규모를 보정해도 ETH의 청산 강도가 높다

동일 보도에 포함된 BTC·ETH만 비교한다. 집계기간과 미결제약정의 성격은 다르다.

강제청산 명목액



지표	BTC	ETH
미결제약정 · 약, USD bn	52	30
청산액 / 미결제약정¹	0.38%	0.95%
두 자산 청산액에서의 비중	40.8%	59.2%

출처: 2026.10.15 CoinDesk가 인용한 CoinGlass 스냅샷 [3]. BTC·ETH 합계는 483백만달러다. 청산액은 직전 24시간 명목액, 미결제약정은 보도상 시점 값이다. ¹ 197/52,000 및 286/30,000으로 계산. 입력값은 반올림된 값이다.

TradeLens 해석 | 약 2.52배의 상대 강도

청산액을 보고된 미결제약정으로 나눈 참고비율은 ETH가 BTC의 약 2.52배다. 단순 청산액 크기보다 포지션 시장의 규모를 함께 보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이는 계정별 청산확률이나 사전 위험률이 아니다.

가격 변화가 달리 표시 미결제약정의 분모에도 영향을 준다. 관측시점의 잔액은 이미 일부 청산이 반영됐을 수 있으며, 두 자산의 증거금·거래소 구성도 다를 수 있다. 이 비교만으로 ETH의 구조적 위험이 항상 더 크다고 일반화하지 않는다.



04 / DATA INTERPRETATION

청산 명목액·실현손실·자금 유출은 다른 숫자다

통계의 정의와 수집 방식 자체가 사건 해석의 일부다.

관측 지표	뜻하는 것	바꾸어 읽으면 안 되는 것
청산 명목액	강제 종료된 계약의 명목 가치	투자자 원금 손실·거래소 수익
미결제약정 (OI)	아직 열려 있는 계약의 잔액	누적 거래대금·순수 현금 유입
거래량	기간 중 체결된 계약의 회전	서로 다른 투자자의 수·잔고
보험기금 잔액	플랫폼 규칙에 따른 손실 완충자원	공적 예금보험·현물의 보장
이동 24시간 집계	특정 시점 이전 24시간의 합계	서로 겹치는 집계들의 단순 합산

공식 API도 가격과 방향의 정의를 먼저 읽는다

Bybit의 전체 청산 피드는 500ms 주기로 전송되며, 방향 필드는 청산된 포지션의 방향이고 가격 필드는 파산가격이다. 이를 일반 매도·매수 주문 방향이나 실제 시장 체결가격으로 자동 해석하면 집계가 달라진다. [7]

Bybit는 2025년 2월 기준 초당 1건 제한 피드를 폐기 대상으로 표시하고 전체 청산 피드를 도입했다. 과거 피드의 제한을 현재 모든 데이터에 적용하거나, 새 피드가 있다고 모든 집계업체가 완전한 자료를 보유한다고 가정할 수는 없다. [8]

통계 검증의 원칙

거래소 범위·상품 종류·단위·시간대·중복 제거·가격 필드를 고정한 뒤 비교한다. 공개 집계들의 누락을 임의의 배수로 보정하지 않는다. 거래량과 OI의 구분은 거래소의 공식 정의를 따른다. [13]



05 / MARGIN MECHAN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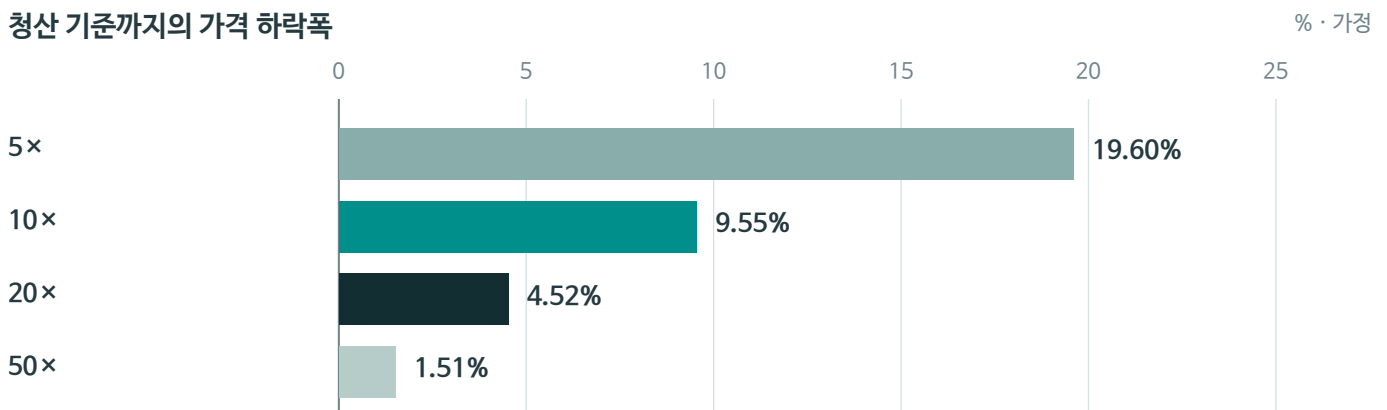
청산은 원금이 전부 소진되기 전에 시작될 수 있다

설명용 모형 A | 고정 유지증거금률을 적용한 달러 담보·선형 롱 포지션.

모형 가정

진입가격 $P_0=100$, 수량 q , 초기증거금 $M=qP_0/L$, 유지증거금 $=mqP$, $m=0.5\%$. 수수료·펀딩·추가 입금·구간별 증거금은 제외한다. 계정자산 $E=M+q(P-P_0)$ 가 유지증거금과 같을 때 청산 기준에 도달한다.

청산 기준까지의 가격 하락폭



초기 레버리지	청산 기준가격	기준가격 대비 하락폭
5배	80.40	19.60%
10배	90.45	9.55%
20배	95.48	4.52%
50배	98.49	1.51%

계산식: $Pliq=P_0 \times (1-1/L)/(1-m)$. 파산가격은 같은 단순 가정에서 $P_0 \times (1-1/L)$. 표는 특정 거래소의 현행 증거금률·허용 레버리지·실제 계정 조건이 아니다.

수식에서 읽어야 할 것

높은 레버리지는 작은 가격 변화도 강제 매매 조건으로 바꾼다. 실제 플랫폼은 마크가격과 위험 구간, 부분청산 절차를 적용할 수 있어 단순한 $1/L$ 하락폭을 실제 청산가격으로 사용할 수 없다. [5] [6]



06 / COLLATERAL RISK

담보도 하락하면 증거금의 완충력이 동시에 줄어든다

설명용 모형 B | 같은 인정담보로 시작해 위험담보의 가격 하락 효과를 비교한다.

교차증거금은 여러 포지션이 담보를 공유하고, 격리증거금은 정해진 담보 범위를 분리한다. 교차 방식은 자본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만 다른 포지션의 손익이 계정 전체의 여력에 영향을 준다. [9]

가정 · 달러	가격 불변 담보	위험담보
최초 담보 시장가치	2,000	2,500
담보 인정률	100%	80%
최초 인정담보	2,000	2,000
담보 가격 변화	0%	-30%
충격 후 인정담보	2,000	1,400
선물 평가손익	-1,000	-1,000
충격 후 인정 계정자산	1,000	400
가정 유지증거금	450	450

양 계정: 진입 명목액 10,000, 선물가격 -10% → 현재 명목액 9,000. 임의 유지증거금률 5% → 450. 위험담보 인정액=2,500×70%×80%=1,400. 모형 A와 별개이며 실제 거래소의 담보율이 아니다.

TradeLens 해석 | 자산과 담보의 동반 악화

선물 손실이 같아도 인정 계정자산은 1,000과 400으로 갈린다. 후자는 유지증거금 450에 미달한다. 담보 할인은 평가상 인정액의 조정이지 같은 금액의 현금 손실이 즉시 확정된다는 뜻은 아니다.

가격 불변 담보는 계산을 위한 가정이다. 실제 스테이블코인에는 가격·상환·플랫폼 위험이 남는다. 담보 이동이 가능하더라도 전송·브리지·정산 대기 때문에 필요한 순간의 증거금과 즉시 같은 역할을 하지 못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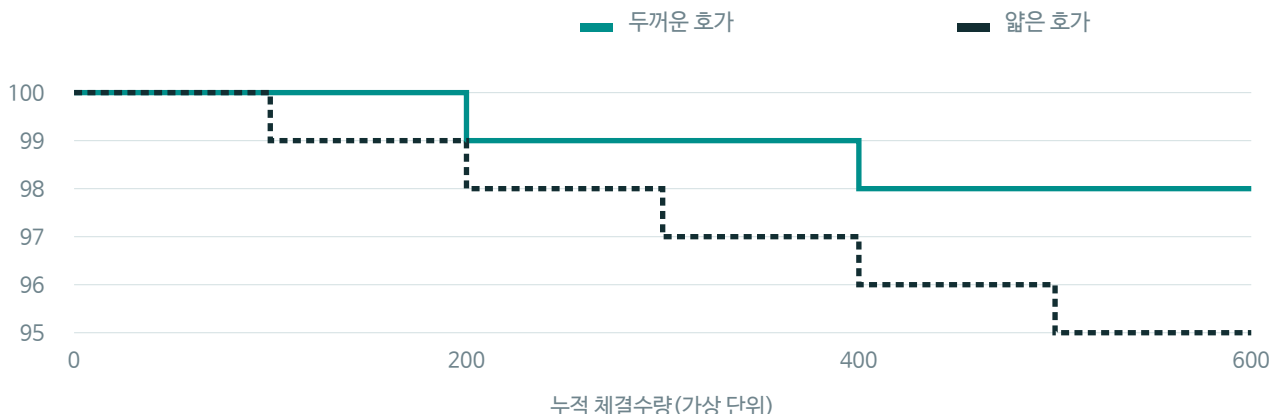
07 / LIQUIDITY AMPLIFICATION

같은 강제 매도도호가 깊이에 따라 충격이 달라진다

설명용 모형 C | 동일한 600단위 매도와 두 가지 정적 매수호가를 비교한다.

동일한 매도량, 다른 체결 깊이

가격지수 · 가정



정적 호가 가정	두꺼운 호가	얇은 호가
가격 100·99·98·97·96·95별 수량	각 200	각 100
600단위의 평균 체결가격	99.00	97.50
마지막 체결가격	98	95
기준가격 100 대비 평균 슬리피지	1.00%	2.50%

호가 보충·취소·다른 주문·수수료가 없는 독립 모형. 두꺼운 호가는 100·99·98에서 각 200, 얇은 호가는 100~95에서 각 100 체결. 마지막 체결가격을 다음 청산의 마크가격으로 자동 대입하지 않는다.

연쇄청산이 생기는 조건

가격 재평가 → 유지증거금 미달 → 강제 주문 → 체결 유동성 소진이 이어질 수 있다. 다만 한 거래소의 마지막 가격이 곧 모든 거래소의 청산 기준은 아니다. 마크가격 산식과 거래소 간 헤지·차익거래를 통해 전이 여부가 결정된다. [\[5\]](#) [\[10\]](#)

24시간 거래된다는 사실이 모든 시간대에 같은 호가 깊이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청산 건수보다 같은 매도량을 흡수하는 데 필요한 가격 이동, 스프레드와 호가 복원 속도를 함께 평가해야 한다.



08 / LOSS ALLOCATION

청산은 손실을 없애지 않고 부담 주체를 바꾼다

플랫폼별 규칙의 비교다. 이번 사건에서 보험기금 소진이나 ADL이 발생했다는 주장은 아니다.

구조	일반 청산 이후	최종 부담의 경로
Bybit 보험기금 사례 [14]	인수·실제 체결가격을 비교해 파산가격 대비 잉여·부족분 처리	잉여는 기금, 부족은 기금의 완충력에 영향을 줌
Hyperliquid 백스톱 인수 [10]	호가를 통한 청산이 충분하지 않으면 규칙상 백스톱 인수 구조 사용	HLP 구성 전략이 포지션을 인수하며 시장위험 부담
Hyperliquid ADL [12]	계정 또는 격리 포지션의 가치가 음수가 되는 경우	순위 기준에 따라 반대편 포지션을 줄여 부족분 처리

누가 수익을 얻는지도 구분해야 한다

거래 수수료, 청산 포지션의 인수손익, 보험기금 변동, 펀딩은 서로 다른 흐름이다. 특히 Hyperliquid의 펀딩은 계약 당사자 간 지급이며 플랫폼이 그 지급에서 수수료를 거두는 구조가 아니다. [11]

수익과 위험은 함께 이동한다

청산 물량을 받아주는 주체가 스프레드나 인수 이익을 얻더라도 재고 위험과 추가 하락을 부담한다. 거래 증가만으로 거래소·유동성공급자·토큰 보유자의 순이익을 같은 방향으로 추정할 수 없다.

백스톱은 일반 청산을 보완하는 포지션 인수 구조이며, 자동 디레버리징은 ADL을 뜻한다. 중앙화 거래소와 온체인 프로토콜의 절차·기금·계정 권리는 서로 같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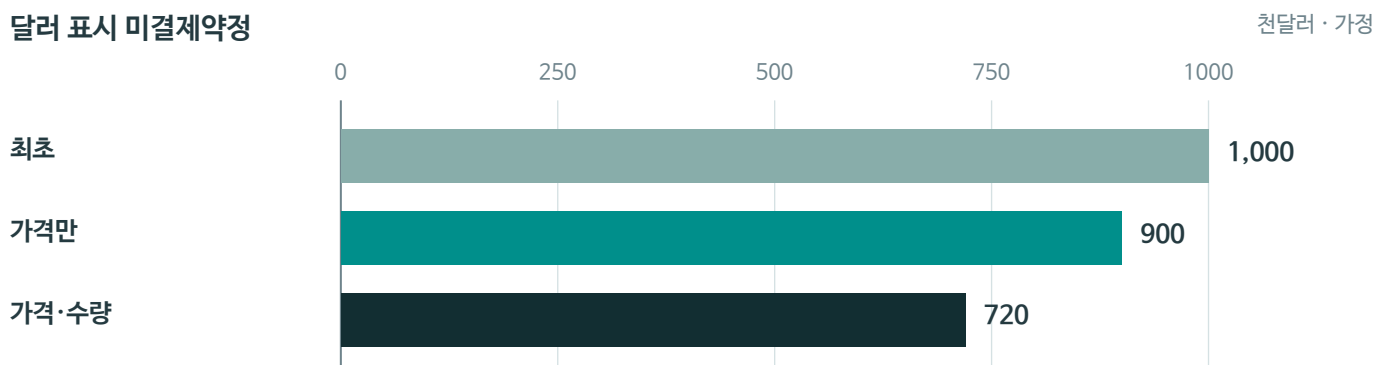
09 / OPEN INTEREST

달러 표시 이 감소가 전부 포지션 축소는 아니다

설명용 모형 D | 선형 계약에서 가격 효과와 수량 효과를 분리한다.

미결제약정은 아직 종료되지 않은 계약 잔액이며 기간 중 거래량과 다르다. 달러 가치로 표시된 선형 계약 잔액은 기초가격과 계약 수량의 영향을 함께 받는다. [13]

달러 표시 미결제약정



항목	최초	가격만 하락	가격·수량 하락
가격	100	90	90
기초자산 환산 계약수량	10,000	10,000	8,000
이 달러 가치	1,000,000	900,000	720,000
달러 이 변화	—	-10%	-28%
수량 변화	—	0%	-20%

계산: 수량 변화율 = $(1 + \text{달러 이 변화율}) / (1 + \text{가격 변화율}) - 1$. 마지막 열은 $0.72 / 0.90 - 1 = -20\%$. 계약 승수·단위가 고정된 선형 계약의 설명용 계산이다.

관측의 한계

수량이 실제 줄어도 강제청산, 자발적 포지션 종료와 거래소 이동을 나누어야 한다. 이에는 계약의 롱·숏 양측이 있으므로 이 증가만으로 순매수 유입이나 롱 우위를 단정하지 않는다. 역선물은 해당 계약의 정의로 다시 계산한다.



10 / FUNDING & BASIS

펀딩의 부호보다 비용의 기간과 포지션 규모가 중요하다

계약의 가격 괴리를 조정하는 지급과 거래소 수수료를 구분한다.

Hyperliquid 문서상 펀딩은 롱과 숏 간의 정기 지급이며 시간별로 반영된다. 다른 플랫폼의 8시간 표시율과 비교할 때는 단위를 맞춰야 한다. 아래 수치는 실제 지급률이 아닌 고정률 가정이다. [\[11\]](#)

설명용 가정 · 명목액 \$10,000	A: 0.010% / 8시간	B: 0.004% / 1시간
24시간 지급 횟수	3회	24회
단순 일간 부담률	0.030%	0.096%
하루 지급액	\$3.00	\$9.60

고정 명목액·고정 양의 펀딩률·24시간 계속 보유·롱 지급 가정. 복리·거래수수료·가격 변화 제외. 실제 펀딩은 시점별로 달라지며 이 가정으로 장기수익률을 예측하지 않는다.

지표	해석 가능한 정보	한계
양의 펀딩	해당 주기의 롱 지급·숏 수취 비용	차입·헤지·구조적 수요가 섞임
음의 펀딩	해당 주기의 숏 지급·롱 수취 비용	그 자체가 가격 반등의 증거는 아님
만기선물 베이스스	현물 대비 기간·자금조달·헤지 조건	무기한 펀딩률과 동일한 지표가 아님

TradeLens 판단

가격이 옆으로 움직여도 누적 지급은 증거금 여력을 줄일 수 있다. 시장 정상화는 펀딩 한 항목의 중립화가 아니라 계약수량·담보 여력·호가 복원의 조합으로 판단한다.



11 / KOREAN MARKET TRANSMISSION

원화 수익률은 달러가격·환율·국내 프리미엄의 결합이다

설명용 모형 E | 동일한 가상자산을 같은 시점에 비교하는 가격 항등식.

분해식

원화가격 = 달러 기준가격 × 원/달러 환율 × (1+국내 프리미엄). 프리미엄은 이 비교식으로 정의한 잔차다. USDT 표시 가격은 USD 가격과 같다고 가정하지 않고 USDT/USD 변동도 확인한다.

가정 · 실제 시세 아님	최초	환율만 완충	프리미엄 축소 동반
달러 기준가격	100	94	94
원/달러	1,400	1,428	1,428
국내 프리미엄	5%	5%	1%
원화가격	147,000	140,943.6	135,574.32
최초 대비 원화 수익률	—	-4.80%	-7.77%

동일한 달러가격 -6%, 원/달러 +2% 가정. 마지막 열: $0.94 \times 1.02 \times 1.01 / 1.05 - 1 = -7.7726\%$. 가격 차이는 환전·입출금·수수료를 포함한 무위험 차익을 뜻하지 않는다.

국내 현물의 위험과 해외 파생 청산은 같은 개념이 아니다

차입하지 않은 현물 보유에 해외 선물의 유지증거금 규칙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원화가격 조정과 매도 시 체결비용은 여전히 발생할 수 있다. 담보자산을 국내 현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이전 가능성·소요시간이 중요하다.

시간 기준까지 맞춘다

업비트의 전일 대비 등락률과 일봉은 UTC 0시, 즉 한국시간 오전 9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동 24시간 집계나 한국 증시 종가 수익률과 그대로 비교하지 않는다. [15]



12 / SCENARIO MATRIX

반등의 성격은 포지션과 유동성의 조합에서 드러난다

조건부 분석 시나리오이며 가격 방향·매매 시점을 제시하지 않는다.

시나리오	함께 나타날 조건	경제적 해석
거시 부담 지속	금리·달러 압력 지속, 현물 수요 약화, 호가 복원 지연	청산이 줄어도 가격 재평가의 부담이 남음
질서 있는 디레버징	계약수량 감소, 펀딩 안정, 스프레드·깊이 회복	잔존 포지션의 완충력 개선 가능성
레버리지 재축적	가격 반등과 이 수량·지급부담 재증가, 얇은 호가	반등과 강제 매매 취약성이 공존할 수 있음
국내 가격 괴리	달러가격과 원화가격 차별화, 환율·프리미엄 변동	국내 수익률을 해외 가격 방향 하나로 설명하기 어려움

현재 자료가 지지하는 판단의 범위

사건 스냅샷은 BTC와 ETH에 강제청산이 집중된 국면을 보여준다. 그러나 같은 자료만으로 이후 레버리지 청산이 완료됐거나 현물 수요가 회복됐다고 판정할 수 없다. [3] 본문의 모형은 그 구분에 필요한 조건을 보여주는 분석 장치다.

핵심 반증 조건

가격 회복과 함께 가격효과를 제거한 이 수량이 안정되고, 양방향 호가·펀딩·담보 유동성이 개선된다면 잔여 강제청산 위험에 대한 경계는 낮출 수 있다. 반대로 얇은 호가 속의 빠른 재레버징은 정상화 판단을 약화시킨다.

시나리오별 확률·수익률·목표가격은 제시하지 않는다. 거래소별 지표가 다르면 먼저 상품과 단위, 관측 시간을 맞춘다.



13 / RESEARCH VERDICT

사건의 원인은 시간으로, 증폭은 구조로 검증한다

거시 충격과 청산 구조를 결합하되 관측되지 않은 인과의 크기를 추정하지 않는다.

1. 시간 정렬

발표 전후 구간을 분리한다. 겹치는 24시간 집계를 더하지 않고 뉴스 게시시각을 체결시각으로 바꾸지 않는다.

2. 노출 정규화

청산 명목액을 손실액으로 읽지 않는다. 이는 가격 효과와 수량 효과, 상품별 계약 정의를 함께 확인한다.

3. 체결능력 확인

마크가격과 마지막 가격, 실제 체결가를 분리한다. 스프레드·호가 깊이·담보 이전 여력이 동시에 중요하다.

4. 국내 전달 분리

해외 선물의 청산과 국내 현물가격을 연결하되, 환율·프리미엄·일별 기준시간을 별도로 평가한다.

검증 항목	자료를 맞출 기준
이벤트 창	공식 발표시각, 전후 동일 길이 구간, 다른 뉴스 기록
파생 포지션	거래소·계약별 수량, 달러 이, 청산 방향과 가격 필드
가격·유동성	같은 시각의 현물·마크·실제 체결, 양방향 호가 깊이
회복 판단	가격 반등 + 과도한 레버리지 완화 + 유동성 회복

최종 판단

미국 물가지표는 위험 재평가의 촉매다. 그러나 손실을 증폭시키는 것은 레버리지·담보·유동성의 결합이며, 위험 정상화도 이 세 조건의 개선으로 판단해야 한다. 국내 투자자에게는 원화가격의 추가적인 분해가 필요하다.

검증표는 후속 관측의 기준이다. 표의 모든 변수가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측정·개선됐다는 뜻이 아니다. 본 보고서는 구조 분석이며 가격 전망이나 개인별 투자 자문이 아니다.



14 / SOURCE REGISTER

사건 수치와 청산 규칙의 원문 근거

청록색 출처번호·자료명·오른쪽 링크를 누르면 해당 원문으로 이동한다.

01. 미국 노동통계국 BLS Consumer Price Index — September 2026 2026.10.14 · 공식 통계 · CPI 구성과 발표시각	원문 열기
02. 미국 노동통계국 BLS Producer Price Indexes — September 2026 2026.10.15 · 공식 통계 · 최종수요 PPI와 발표시각	원문 열기
03. CoinDesk · CoinGlass 인용 Nearly \$1 billion in crypto bets liquidated as bitcoin, ether and XRP slide 2026.10.15 00:25 EDT · 보도 스냅샷 · BTC·ETH 청산·미결제약정	원문 열기
04. CoinDesk Live updates: Bitcoin bounces back to \$82,000 after first fall below \$80,000 in one month 2026.10.15 · 시장 보도 · CPI 이후 변동성과 기술주 동반 약세	원문 열기
05. Bybit Trading Rules: Liquidation Process (Unified Trading Account) 2026.08.07 · 공식 거래규칙 · 격리증거금·마크가격·청산식	원문 열기
06. Bybit Risk Limit (Perpetual and Expiry Contracts) 2026.09.04 · 공식 거래규칙 · 포지션 구간별 증거금	원문 열기
07. Bybit API All Liquidation — Public WebSocket 2026.10.17 기준 · 공식 API · 500ms·방향·파산가격 필드	원문 열기
08. Bybit API V5 Changelog — All Liquidation Update 2025.02.20 · 공식 변경기록 · 기존 제한 피드와 전체 피드 구분	원문 열기
09. Hyperliquid Margining 2026.10.17 기준 · 프로토콜 문서 · 교차·격리증거금과 계정 가치	원문 열기
10. Hyperliquid Liquidations 2026.10.17 기준 · 프로토콜 문서 · 호가 청산과 백스톱 인수	원문 열기
11. Hyperliquid Funding 2026.10.17 기준 · 프로토콜 문서 · 당사자 간 펀딩 지급과 주기	원문 열기
12. Hyperliquid Auto-deleveraging 2026.10.17 기준 · 프로토콜 문서 · 반대 포지션 감축과 손실 처리	원문 열기
13. CME Group Open Interest 2026.10.17 기준 · 거래소 교육자료 · 거래량과 미결제계약의 구분	원문 열기
14. Bybit Insurance Fund 2026.03.24 · 공식 거래규칙 · 파산가격 대비 잉여·부족분	원문 열기
15. 업비트 거래 이용 안내 / Trading Guide 2026.10.17 기준 · 공식 이용안내 · 원화·USDT 마켓과 UTC 기준	원문 열기

자료 범위: 사건 수치는 보도 시점의 집계이며 거래규칙은 해당 플랫폼에 한정한다. 설명용 모형은 실제 거래소 자료·계정 손익·가격 전망이 아니다.



15 / METHODOLOGY & USE

작성 기준·면책고지·보고서 이용 안내

공식 통계, 보도 스냅샷, 거래규칙과 설명용 계산을 구분한다.

항목	적용 기준
기준일·자료 범위	2026.10.17. 미국 9월 CPI·PPI, 10월 15일 아시아 시간대 BTC·ETH 보도 스냅샷. 이후 최신 가격·청산액으로 소급 변경하지 않음.
사건·인과	청산 집계는 이동 24시간, 이는 시점값. 보도 게시시각과 정확한 데이터 종료시각을 구분하며 CPI·PPI의 단독 효과를 추정하지 않음.
모형 A·B	6쪽: 진입가격 100, 유지증거금 0.5%, 5·10·20·50배. 7쪽: 별도 5% 유지증거금, 인정담보 2,000, 위험담보 80% 인정·가격 -30%.
모형 C·D	8쪽: 정적 호가와 600단위 매도, 호가 보충 없음. 10쪽: 고정 승수 선형 계약에서 가격·수량에 따른 이 달라 가치 분해.
기간·원화 모형	11쪽: 명목액 10,000달러와 고정 펀딩 가정. 12쪽: 달러가격 -6%, 원/달러 +2%, 프리미엄 5%→1%. 실제 상품·시세 아님.

표시는 원수치 계산 후 반올림한다. USD m은 백만달러, USD bn은 10억달러이며 1bp=0.01%포인트다. 청산 명목액·손실·출금·기금·수수료를 합산하지 않는다. 특정 플랫폼의 사용이나 거래를 권유하지 않는다.

면책고지

본 보고서는 디지털자산·시장구조 및 관련 사업의 성장성·수익성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매수·매도 의견·시점, 적정가격·목표가격 및 이용자별 투자자문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수록 정보와 분석은 작성일 기준이며 정확성·완전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전망·가정 및 예시 계산에는 불확실성이 있으며 원금이나 투자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판단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계 법령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트레이드렌즈는 본 보고서 이용에 따른 투자손실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저작권 및 이용 제한

본 보고서의 서술·도표·디자인·편집 및 구성 중 트레이드렌즈가 권리를 보유한 부분은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됩니다. 개인 열람·보관 외에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편집·번역·재가공하거나 복제·전송·재게시·재배포·판매할 수 없습니다. 유료·무료 제공 및 파일·화면 캡처 등 형태를 불문하며 로고·출처·권리표시를 제거하거나 제3자 명의로 배포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이용과 제3자 자료의 개별 이용허락조건은 그에 따릅니다. 공유는 트레이드렌즈 공식 게시페이지의 원문 링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